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어서 정말 하나도 남김 없이 몰락 놔라

☞ 17면에서 계속

밖에는 없는 건성 맥, 지관이 볼 때에 겉 맥만 보지 속 맥은 못 본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우리 이 공부한 사람들은 겉 맥을 보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옵니다. 겉 맥을 보지 않고 속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지팡이로 탁 찍으면 그대로 그 자리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겉 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속 맥에서 딱 찌르면 벌써 혈은 거기…. 우리가 저런 가설을 할 때도 저기 다 해 놨지만 때에 따라서 줄을 다른 데다가 이어서 코드를 꽂게 만들어 놓으면 또 그대로 불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맘대로다 이거야, 맘대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맘대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인제 겉 맥이다, 중맥이다, 대맥이다 이러는 문제가, 지금 저 하늘에 별들이 있는 것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렇듯이 이 땅의 혈맥도 사자혈이 있고 사슴혈이 있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붙이되 그것도 또 맞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의 산이 있으면 사자의 혈도 있고 거북혈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여 놓는 것은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면, 한 집 한 집이 따로따로 있는데 큰 집에 가설이 된 집도 있고 작은 집에 가설이 된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집에는 동맥이 들어가 있고 작은 집에는 아주 조그만 소맥이 들어가 있죠. 또 어떤 회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동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자혈이라고 하고 또 작은 거는 중혈, 이런 것은, 즉 말하자면 사슴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혈, 족혈, 풍혈, 무슨 지혈 이런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오혈! 사람도 오혈이 있듯이 '오혈'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집, 개인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 공부 한 사람들은 개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위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개천이죠. 근데 그 밑을 본다면 맹숭맹숭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청혈이다, 수혈, 또 오혈, 불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지금 땅속에 말입니다, 즉 입관을 해서 딱 묘지를 쓴다 하면 어떤 게 나쁜가 좋은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정혈, 이것은 좋은 맥에서 산의 흙이나 모든 것이 인체를 묻으면 한데 한마음으로 뭉쳐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잘 썩고 또 자손들이 잘된다는 뜻이죠. 전기가 같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혈맥이 만약에 저런 코드가 없는 그런 아무 데나 묻어진다면 전기가 통하질 않기 때문에 그 자손들한테도 그런 게 영향이 다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빛을 못 보고 산 사람도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산을 찾는 거죠. 맥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맥이 따로 없다고 내가 항상 그러죠. 팔자 운명도 따로 없고 맥도 따로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럴지언댄 일체 만법이 다 그렇고 산맥도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그렇게 봐서…. 또 어떠한 혈은 우리가 꼭 과학적이라고 안 그래도 사실이 그런 겁니다.

속에서 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구에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일 킬로에, 즉 말하자면 감각을 두고 이렇게 여며졌다. 그럼 거기서 분비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분비물이 나오니까 그것이 자꾸자꾸 가스로 화해서, 이것이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즉 몇 킬로가 되는 데도 있고 몇 킬로 안 되는 데도 있고, 물속은 이 지구의 거리가 조금 얕게도 될 수 있고 이 육지로는 더 높게도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백팔십 미터 정도로 밑에 수증이 흐른다. 깨끗한 물이 흐른다. 정혈을 다 할 수 있는 물이 흐른다 할 때는 거기에 입관을 시키면 참 좋다. 그건 수혈이기 때문에 청혈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불혈이다 하는 것도 혈에다가, 어떤 사람의 팔에다가 묻어 놓는다면 팔을 쓰지 못한다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혈을 막아 놓으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혈이 있을 때는 뭘 뜻하느냐. 혈을 혈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건 이름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땅속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이렇게 표면으로 탁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땅속에서 숯 굽는 것처럼 타 버리거든요. 그렇게 타 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속에서 타지 않는다면 우리 금은보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석탄도 나오지 않고 또 온수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가스도 나와서 우리가 전기로 쓰고 온수도 나오면 또 쓰고 우리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죠. 석탄도 나오고 또 기름도 나오고 보물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뭐, 별거 별거 다 나오지 않아요? 수정도 나오고. 그런 것이 바로 숯 굽듯이, 그 속에서 바깥으로 풍기질 않고 탔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바깥으로도 얼마나 화산이 많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수억의 집이 그냥 땅속으로 막 들어갔습니까? 우리 한국만은 그냥 조그마한 지진에 불과했지마는 딴 데는 참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역이 얕은 관계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혈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한 것을 보고서 거기에 어떠한 입관이 된다면 빨리 그 열기가, 힘이 거기에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차원에 의해서, 그것도 생명의 차원에 그 혈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이 집안이 잘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혈을 찾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그대로지. 그대로 내가 생각하면, 생각을 먹고 놓든지 안 먹고 놓든지 이건 자기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 지수화풍으로 뭉쳐질 때도, 그때에 지수화풍으로 뭉쳐져서 우주가 형성될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같이 있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갖추어져서 우리가 눈도 빤딱거릴 수 있고 귀도 있을 수 있고 오관을 통해서, 오선을 통해서, 감각과 기관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맘대로 살 수가 있는 건데, 맘대로 살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는데 자기네들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해 놓고 자기네들이 모르는 겁니다. 굼벵이도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매미가 돼 나와 가지고서는, 굼벵이가 자기를 매미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매미로 만들어 놓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렇게 자유권을 가졌으면서도 그 자유권을 흥미롭게 자기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법이 얼마나 좋은지 그대로 법이다, 그대로. 그대로 부처님 법이고 그대로 중생 부처가 둘이 아니다. 선장과 오장육부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그대로, 이 오장육부의 생명들의 그 마음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내 선장이라는, 인간이라는 마음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것은 한데 모였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거야. 그러니 자유자재껏 써라 이거거든. 중생 부처가 따로 없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나오는 요 미묘한 법이니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대로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저 담기는 대로 내가 묘미 있게 잘 활용을 한다면, 활용도 그대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하면서도 활용하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 저런, 활용법부터 배워!" 이러거든. 이 세상에 나오면 활용법부터 배운다고. 걸음마를 떼. 먹을 걸 달래. 벌써 젖 빨려고 고개를 막 흔들거든요. 그것도 활용이라고. 왜? 쪼끄매서부터 나오면 벌써 눈반짝거리고, 혓바닥 날름거리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 활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공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즉 말하자면 시공을 초월한 거기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거, 먹을 때 먹고 빈 병 내놓을 때 내놓고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중략)

옛날에 이런 예도 있었죠. 어느 스님께서 "너, 아침 죽을 먹었느냐?" 하니까 "예." 이건 벌써 먹지 못한 거거든. "예." 했단 말이야. "너, 등잔 좀 가져오너라." 이런다면, 아니, "등잔 좀 가져오너라." 했으면 벌써 불을 켤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등잔 좀 가져오너라." 해도 등잔만 놓고는 불도 켤 줄 모르는 거야. 이 식이나 똑같습니다. 등잔이 있으면 사람의 손이 가야 하고 성냥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삼합이 맞아야 맞아 돌아가는 거죠. 뜻과 행과 말, 이 삼합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먹었느냐?" 하니까 "예."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마디를 재차 아주 안타깝게 "그럼 식기는 닦았겠지?" 또 "예." 그럼 그건 아주 팡이죠. 갖다 주는 밥도 못 먹는 겁니다.

> **맛있는 건 먹고 놓고 안 맛있는 건 쏟아 버리고 놓고,**
> **그러다 보면 그건 역력하게 활용을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 **그게 바로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걸 맡겨 놔라 하니까 그저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맡겨 놓는 거야. 빈 병이나 든 병이나 그냥 막 그냥, 응? 그래 놓곤 "아무리 맡겨도 안 됩니다." 이거거든. 야, 빈 병은 그대로 놓을 수 있지마는 담긴 병은 좀 먹고 놓으면 어떠냐 이거야. 좀 그거 지혜가 안 돌아가, 응? 그거는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아쉬우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빈 병이든 담긴 병이든 주면, 담겼으면 벌써 자기가 알아서 '이건 먹으라고 준 거구나.' 하고 감사하게 먹고 놔야지. 그저 담긴 것도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 어떡해요, 그거를? 자기가 먹지 않고 놓은 거를. 벌써 지났단 말이야. 지나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느냐면 "아휴, 저는 맡겨 놨는데도 안 되더군요." 이러거든.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자동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얼른 마시고 탁 놔야 또 돌아가는데 이거 먹지도 않고 그냥 놓은 거야. 그 스님께서 "죽 먹었느냐?" 할 때 "식기 닦았습니다." 했으면 벌써 먹은 거라. 아니, 그걸 몰라,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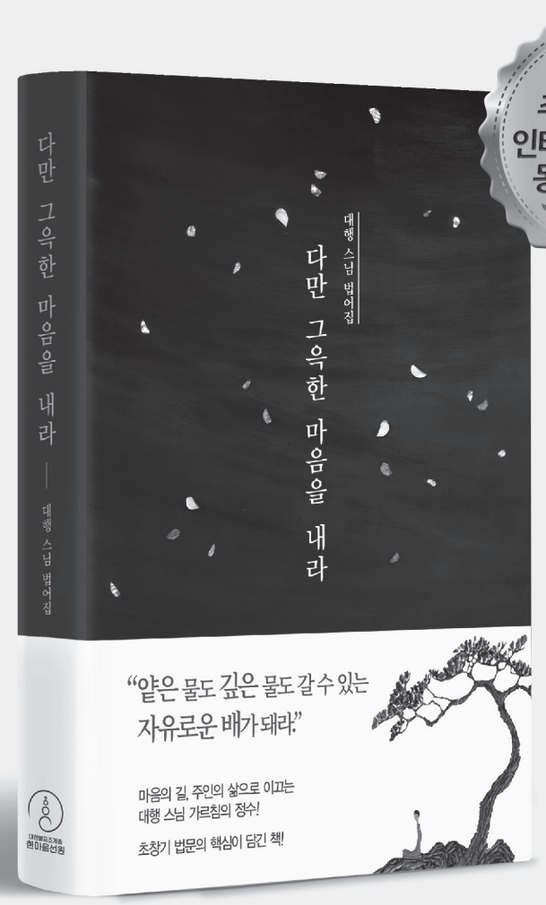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 뜻이, 여기에서 물리가 터져야 되니까 모든 것을 여기에서 내가 믿어서, 진짜로 믿어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몰락 놔라 이거야, 몰락 그냥! 몰락 놓는데 "몰락 놔라" 하는 속에 담긴 것도 있고 안 담긴 것도 있고, 부패된 것도 있고 뭐, 별거 별거 다 있어요, 몰락 놓으라는 그 속에. 그러니 그거는 생각대로들 하세요. 먹고 놓든지, 맛있는 건 먹고 놓고 안 맛있는 건 쏟아 버리고 놓고 이렇게, 자꾸자꾸. 그러다 보면 그건 역력하게 활용을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익하고. 그게 바로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는 겁니다. 공용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개별적인 생각 그것은 힘이 없지만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푹푹 솟습니까?

그러니 항상 얘기를 해 드리듯이 저 코드가 저렇게 있어도 우리가 저거를 낄 줄 모르면 안 돼요. 끼었다 뺐다 할 줄 모르면, 끼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빼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건데, 몰락 놓으랬으면 끼는 것도 놓은 거고 빼는 것도 놓은 겁니다. 거기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 다 놨는데 불 켤 때는 끼고, 자유스럽게, 또 켜지 않을 때는 빼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쓰는 그 자체가 바로 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대로 무심으로 그래도 그대로 놓으면서, 자유롭게 쓰면서, 바로 자기가 완전히 그것을 체험하면서, 자기는 자신이 생기면서, 아주 도도하게 자신이 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도도하게 설 때가 빳빳하게 설 때죠. 빳빳하게 설 때가 한참 돌아가다가 아, 이게 넓히다 보니까 '아하! 이 물감 오십 가지가 다 여기에 들어 있구나.' 하고 '이 백지에 그림을 다…, 이 오십 가지의 물감이 여기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백지더라 이겁니다. 허허허.

그래서 그 백지에 수많은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도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꺼번에 그 백지 안에 들어서 우리가 같이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고 이렇게 해서, 쓸 때는 그냥 와락 이리로 끌어서 쓸 수도 있고 와락 줄 수도 있고 쪼끄만 데는 쪼끄만 데대로 줄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활용이라는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에 생활을 하는 이 활용이, 즉 말하자면 건성 활용을 하느냐, 지금 저, 외(外)의 활용을 그대로 내공으로부터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실상으로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법인 거죠.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7월 5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